자/유/기/고

이해조 '구마검' 硏究

박 정 근
대진대학교 교수
(이해조문학회 회원)

이 글은 이해조문학회가 지난 3월31일 오후8시부터 영북면 산정리 산정캠프에서 실시한 3월 정기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박정근 회원(대진대학교 교수)이 다시 정리한 글이다. 이날 모임에는 이해조문학회 홍을표 회장을 비롯하여 7명의 회원과 박윤국 포천시장, 박경희 포천시의회 부의장, 이천묵 포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장 등이 참석해 포천출신 이해조 문학공부를 함께 했다. (편집자주)

소설가 이해조는 포천이 낳은 인물 중에서 문학사적으로 최고의 업적을 남겼다. 최근 최원식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소설의 원조 이인직보다 더 높게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포천사회가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그의 작품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해조의 '구마검'은 미신타파를 위한 계몽소설로 볼 수 있으며,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는 미신에 몰두함으로써 오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손실을 강조한다. 이 작품의 간략한 내용은 유교가문의 장손은 함 진해가 두 부인을 상처한 후 세 번 째 부인 최씨를 맞이한 후 발생되는 사건이다.

무당굿에 심취한 최씨가 어렵게 얻은 아들 만득이가 천연두에 걸렸는데 의학에 의존하기 보다는 금방울이라는 무당에게 푸닥거리 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아들을 잃고 만다. 그 후 최씨는 새로운 자식을 얻기 위해서 무당굿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유교집안의 장손인 남편 함진해 마저 끌어들여 부정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집안의 사촌인 함종인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 자신의 부친상마저 참석하지 않는 처사에 분격하여 찾아온 종인에게 오히려 의절을 선언하고 그가 불여먹던 토지마저도 빼앗아 버린다. 무당 금방울은 하인 할멈과 최씨에게 둘러싸인 함진해로 하여금 많은 가산을 무당굿으로 탕진시킨 후 그것도 부족하여 임지관을 엮어서 조상의 묘소가 좋지 않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속여서 이장을 통한 사기극을 연출한다. 자기 집에 나무 땔감을 파는 시골 양반을 끌어드려서 함진해를 감쪽같이 속임으로써 희극적 사기꾼의 역할을 멋있게 해낸다. 결국 함진해가 가산을 탕진해버리자 함씨 종친회에서는 종손의 역할을 그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촌동생 함종인에게 맡기고, 종인의 아들 종표로 하여금 진해의 양자가 되도록 결정한다. 종표는 심성이 착하여 함진해와 최씨에게 효성을 다하여 양자로서 신임을 획득한다. 그 뿐만 아니라 공부에 몰두하여 판사가 되고 함진해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금방울과 임지관 일당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법의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권선징악의 결말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이해조는 대표적 존재인 무당과 풍수지리의 허황성과 비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고대 소설의 전형적인 주제인 권선징악의 틀이 유지되고 있으나 신문물과 신사고의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구세대의 가치관의 모순들이 극복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구마검'에 나오는 인물들은 유교적 인물 함진해, 함종인, 샤마니즘 인물로 부인 최씨, 노파, 무당 금방울, 풍수지리적 인물 임지관 등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함진해는 양반출신으로 합리적 사고를 자처하다가 샤마니즘에 빠져있는 부인과 무당에 의해서 점점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유교적 가치관을 상실함으로써 가문에서 장손으로서 위치를 상실하고 경제적으로 폐망하게 된다. 그의 세 번째 부인인 최씨는 샤마니즘에 몰입함으로써 몰이성적 인물의 상징으로 나온다. 그녀는 매우 귀가 여리고 잘 믿고 잘 속는 어리석은 인물을 상징한다. 결국 합리적 사고가 결여되어있어 이로 인해 자식을 잃고 남편마저 몰락의 길로 인도한다. 특히 유교적 가문의 장손 부인으로서 역할이나 덕성을 부정하는 인물로 샤마니즘의 철저한 희생자로 나온다. 그녀의 수족 노릇을 하는 하인 노파는 샤마니즘을 이용해 물질적 욕구를 채우는 사악한 인물로 나오며 부인 최씨의 눈을 가리고, 샤마니즘의 세력인 무당과 풍수지리의 거간꾼으로 활동한다. 하인으로서의 분수나 충성의 덕성보다는 하층계급으로서 물질적 결핍을 모략과 거짓으로서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인 금방울은 샤마니즘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로 무당으로서의 초자연성이나 영성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내세우는 기만적 인물로 사악한 세력으로 그려져 있다. 임지관 역시 풍수지리를 이용해서 물질적 욕구를 채우는 사기성이 농후한 인물로 매우 꾀가 영리하여 희극의 재미를 더해주는 약아빠진 사기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에 맞서 있는 인물이 함진해의 사촌동생 함종인이다. 그는 샤마니즘에 몰입하여 유교적 가치를 상실해 가는 함진해를 구원하려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지만 끝까지 유교적 가치의 구현자로서 가문의 중심적 인물로 부각된다. 아들 종표를 함진해에게 아들로 주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한다.

'구마검'의 갈등구조는 우선 전통사상과 신사상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사상인 샤마니즘이나 풍수지리에 의해서 유교의 충효사상이 손상되어, 개인적 구복이나 부정탈피를 위해서 가문이나 사회에 있어서 의무를 저버리는 함진해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함종인의 아들인 종표에 의해서 샤마니즘의 세력이 심판을 받는 구조가 전체적인 갈등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갈등은 샤마니즘 대 유교의 대립이다. 금방울이 대표하는 샤마니즘과 임지관이 대표하는 풍수지리에 의해서 함진해가 대표하는 유교세력을 기만하고 짓밟는 갈등관계 설정으로 전자의 일방적인 승리를 보여준다. 즉 그 당시 유교세력이 사회적으로 점점 기반을 잃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플롯은 전반 플롯과 후반 플롯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 플롯은 금방울이 샤마니즘의 상징으로서 유교 세력의 상징인 함진해를 농락하여 가문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대표적으로 함종인을 핍박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병에 걸린 아들에 대한 합리적 대처를 못함으로써 목숨을 잃게 하고 그로 인해 샤마니즘에 의해 아들을 얻고자 하는 굿판에 매달리게 한다. 후반 플롯은 금방울이 임지관과 공모하여 가정의 우환과 득남을 위해서 풍수지리를 끌어들여 조상의 묘를 이장하도록 유도하여 가산을 탕진하여 최서방의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 사기를 당하도록 한다. 후반 플롯은 임지관의 사기성이 탁월하게 그려지고 성공하지만 가문회의에서 함종인의 아들 종표를 양자로 받아들인 후, 종인이 효성을 다하고 신교육을 잘 받은 후 판사가 되어 샤마니즘의 세력에 철퇴를 내리도록 하여 극적인 반전(reversal)을 보여준다.

이 해조가 '구마검'에서 보여주고 주고자 하는 개혁적 비젼은 몰락해 가는 유교세력의 가치관도 아니요, 자본주의와 결탁한 샤마니즘이나 풍수지리도 아니다. 이해조는 신문물에 대한 기대가 함종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구시대의 병폐에 대해서 정의를 대표하는 판사로서 철퇴를 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결코 보복으로 끝나는 비극적 비젼 보다는 깨우치게 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희극적 비젼을 보여준다. 함종해는 도덕적 인격의 측면에서도 전통적 도덕과 새로운 세대의 합리와 지혜를 겸비한 자이다. 즉 이해조가 제시하는 긍정적 인물의 상은 구세대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대의 유교적 가치에다가 신문물의 합리성을 가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인물의 상징성이다. 개개의 인물들이 어느 정도 개성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각각의 계층을 상징할 수 있는 전형성도 지니고 있다. 계급적 상징이나 계층적 상징으로서 어느 정도 개연성을 확보하도록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극적 갈등 구조의 긴장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문학적으로 매우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 전반 플롯이나 후반 플롯이 모두 금방울과 임지관에 의해서 이끌어지면서 극적 긴장이나 흥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소설로서 문학적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도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권선징악의 주제설정을 위해서 양자 종표의 효성이나 성공 등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듯한 냄새를 지울지 못함으로써 종반에서 극적 긴장감이나 개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자면 전통사상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대중을 계몽하기 위해서 사회악이나 모순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은 대개의 계몽소설이 지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샤마니즘의 한계와 단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허위적 요소만을 드러냈다는 문학적 편향성 을 지적할 수 있다. 샤마니즘이 지니는 영성이나 문화적 깊이는 다루지 못하고 무당이나 지관들의 파편적이고 일시적인 병적 현상만을 부각시켰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샤마니즘은 살아있는 세계와 사자의 세계를 연결하여 의사소통하게 하고 사자의 세계를 이해함으로 써 살아있는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긍정적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풍수지리 또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서 인간세계가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하고 물질문명이 빠질 수 있는 자연파괴와 자연과의 부조화를 막을 수 있는 긍정성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 계급적 편향적 묘사 또한 계몽소설로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이해조가 유교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물질문명이나 자본주의적 사고가 싹이 트는 그 당시의 몰가치적 현상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 유교사회의 질서가 무너져서 함진해와 종인과 같이 사촌간의 혈연적 관계가 무너지고 할멈처럼 물질적 욕심 때문에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주계급의 부를 탐하는 하층계급들이 마치 모두 사기꾼인 양 편향되게 묘사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계몽소설의 목적이 사회악이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다면 당시 미신타파가 우리 사회의 당면한 절대절명의 과제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해조는 '구마검'을 통해서 미신타파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 터 뷰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김 성 렬

대학의 우수한 자원으로 생활강좌 운영

독서지도사 · 방과후아동지도사 등 자격증 과정도 운영

김 성 렬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대진대학교 정문까지 오시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쉽게 대진대 건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10~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성렬(51.사진)원장이 대진대학교를 멀게 만 느끼는 포천시민들을 위해 밝힌 첫마디다.

대학의 인적자원과 고급시설을 이용하여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평생교육원이다.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포천시민들을 위해 20여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다.

이름하여 2005학년도 봄학기 강좌가 한창 진행중이다. 지난 3월7일부터 오는 6월17일까지 15주간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과정, 컴퓨터와 인터넷실기 과정, 건강·문화예술과정, 자격증과정, 특별교육과정으로 구분해 강좌가 진행중이다.

외국어과정은 TOEIC 대학생반, TOEIC 직장인반, 원어민 영어회화 초급,원어민 영어회화 중급, 단어로 배우는 중국어, 중국어회화 시작반, 중국어회화 계속반 Ⅰ, 중국어회화 계속반 Ⅱ,초등교사를 위한 영어발음클리닉 Ⅰ, 초등교사를 위한 영어발음클리닉 Ⅱ등의 강좌가 운영중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실기 과정은 컴퓨터 초급 시작반, 컴퓨터 초급 계속반, 엑셀/파워포인트 15일 완성, 한글2002/엑셀 15일 완성, HTML,나모웹에디터 A반, HTML,나모웹에디터 B반, MOUS CORE(엑셀, 파워포인트)A반, MOUS CORE(엑셀,파워포인트)B반, 디지털카메라와 포토샵의 만남 A반, 디지털카메라와 포토샵의 만남 B반등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문화예술과정은 이정숙의 다이어트댄스, 이정숙의 다이어트댄스(주부반), 스포츠댄스 자이브, 스포츠댄스 룸바, 스포츠댄스 차차차, 웰빙요가, 골프, 테니스교실, 태극권, 수지침, 국가공인화훼장식기능사반, 리더쉽 스피치 토론, 전통무용취미반, 전통한지공예반을 운영중에 있다.

자격증 과정은 방과후아동지도사, 어린이영어지도사, 독서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 등의 강좌를 운영중에 있다. 방과후아동지도사 강좌는 수요일 오후6시부터 9시50분까지 15주간 실시되며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도하며 그들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지도교사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기르고 또한 다양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운영관리 등 방과후 지도 전반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어린이영어지도사는 목요일 오후6시부터 9시50분까지 15주간 실시되며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초등학교에 영어교과가 도입된 이래 늘어나는 아동 영어학습 수요에 부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아동 영어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독서지도사는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2시50분까지 15주간 실시되며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원하거나 이 분야의 창업을 원하는 분들의 코스로서 독서·논술지도에 전문 경력을 가진 교수들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강의가 계속되고 있다.

강좌별 수강료는 외국어과정의 경우 10~15만원, 컴퓨터와 인터넷실기과정은 4~12만원, 건강·문화예술과정은 10~18만원, 자격증과정은 30~45만원 등이다.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이들 강좌신청에 대한 할인혜택도 주고 있다. 대진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20%, 교사 및 공무원은 10%, 두 강좌 등록시 한 강좌(고액) 10%, 세 강좌 등록시 두 강좌(고액) 10%, 국가유공자 및 60세 이상 경로우대 20%를 할인해주고 있다.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대진대학교 국제학관 2층에 위치하고 있다.

김 원장은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마련한 강좌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이 원한다면 한문강독이나 한시 과목 등도 개설해 포천유림의 연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 1만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평생교육원은 수강생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김 원장은 특히 평생교육원은 포천문인협회와 공동으로 4월7일부터 10주간 10회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포천마홀문예대학을 개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수필, 소설,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이해를 돕고 창작의 기초를 익힐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여 포천시민의 문학적소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포천의 향토사 특강과 미술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특강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다. 강사는 주로 대진대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포천지역 인사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생교육원의 강좌와 마홀문예대학 강좌도 운영하고 있는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김 원장은 "시민들의 문학과 문화적인 수준의 제고를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강좌에 포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평생교육원을 통해 포천사회가 문화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역동적 토대 구축

제19회 반월문화제 행사 오는 5월22일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오는 5월22일 제19회 반월문화제를 포천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천예술인동우회 주관으로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경기도포천교육청이 후원해 실시하는 제19회 반월문화제는 식전행사와 개회식, 문화행사, 연계행사등으로 나눠 진행될 계획이다.

문화행사는 초·중·고·일반인(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 대회와 유치부·초·중·고·일반(대학생 포함)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생대회,서예,사진촬영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마당에는 종이접기협회 포천지회 주관으로 종이접기 체험실습, 예술인동우회 서예분과 주관 가훈 써주기, 파트아일랜드 주관 페이스페인팅,지점토 공예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각 대회 작품접수는 백일장, 사생, 서예 부문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고 사진은 오는 5월31일까지 포천문화원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반월문화제 연계행사로는 제12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오는 5월17일 11시부터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제12회 포천어린이연극 경연대회를 오는 5월31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포천문화원 사무국(532-5015, 532-5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28)

독도와 '엄주성'님

포천이야기 (44)에서 「독도와 '엄주성'님」이란 제목으로 논한 바 있다.

요즈음 일본은 시마네현 의회에서 2월 22일을 '죽도(竹島)'의 날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소식이다.

100년전 일본은 이날 침략의 상징인 기억해야 할 날로 정한 셈이 된다.

당시 프랑스인이 세계지도 위에 명확한 이름이 없다고 하여 자기네가 최초로 발견한 무인도라고 발견한 사람의 이름으로 명명하려 했던 사실도 있었다.

'동양의 은둔의 나라', '긴 담뱃대를 물고 갓을 쓴 사람의 나라', '상자에다 노예들이 양반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나라', '천하고 미개한 나라'라고 일본을 비롯한 서양 열강들의 깔보던 견해는 독도인들 어찌 바로 볼 수 있었을 것인가? 조상이 물려준 땅 한치인들 남에게 빼앗길 수 있을 것인가(?)

옛 간도 땅을 통일된 대한민국이 우리 영토하고 반환을 요구할까봐 중국은 고구려 땅을 옛 고토(古土)로 하는 새 역사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에게 빼앗긴 북방 4개섬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실패하면 뒤 따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국민 달래기 정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

계속적인 영유권 주장이 없으면 영토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시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봐 일본은 야비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포천과는 독도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일까? 민족 주권 수호단체의 일원이었던 엄주성님은 포천 1931년 군내면 용정리에서 출생하여 6·25참전 용사로 보병 제2사단 헌병상사로 제대 후, 경찰관으로 임관 의정부 경찰서 및 포천경찰서(정보과장)에서 근무한 바 있다.

모범 경찰관으로 중앙정부에 군민의 민원을 청원하시기도 하였으며 평소 근검 절약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였으며 정의감에 불타는 경찰관이었다.

민주인사나 야당 재야인사의 감시나 사찰을 과감히 거부하였던 엄주성님이었다.

포천초등학교 (33회) 재학시에는 나팔수로 멋진 행진곡의 연주자였다.

(비록 일본 행진곡이었으나 '야마네꼬가보꾸노 긴따라 돗데 잇다 잇쓰고로까 방노 쥬니지 고로다'라는 행진곡은 가사도 익살스러웠다.) 민족수호 주권단체(자살경사조직)의 일원이었던 엄주성님은 90년대 중반 일본대사관 앞 독도수호결의 대회 및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결사반대 군중 집회에서 자결함으로서 죽음으로 독도의 수호 결의를 비장하게 나타냈던 것이다.

독도 수비대장이었던 '안용복' 대장이나 '홍순칠' 대장도 훌륭하지만 죽음으로서 비장한 독도 수호결의를 나타낸 포천 출신의 엄주성님(경찰관으로 퇴직)도 독도 묘소에 모셔지고 포천시의회나 도의회 차원에서 비문건립이나 지역교과서 수록 등 다각적인 기념사업이 적극 고려되어야 포천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좋은 책 읽기 운동 추진에 따른 간담회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달 29일 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포천시를 비롯 경기도포천교육청, 도서관, 새마을문고 포천시지부, 종합자원봉사센터, 예술인동우회, 마홀문학회, 마홀독서회, 동화 읽는 어른모임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책 읽기운동' 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만구 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와중에서 잠시라도 여가가 생기면 대다수가 음주, 가무, TV시청, 컴퓨터게임에만 몰두하는 등 정신적인 양식이 되는 독서와는 거리가 멀어진 게 지금의 현실이다"며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신문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좋은 책 읽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단위 각급 기관 단체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3개월 단위로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권장하고 독후감을 모집하여 시상키로 하는 등 추진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를 가졌다.

포천문화원은 지난달 29일 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책 읽기운동' 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따라서 포천도서관, 새마을문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는 권장도서비치 및 대여하고 관내 서점에도 통보하여 구입자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으며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전단 4천부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